

19세기 노동문제에 대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상 비교 - 폰 케텔러와 카이퍼의 사례¹⁾

이명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 연구동기

□ 유럽의 기독교 정당

- 독일 CDU/CSU: 구교 계열 '중양당'의 후신으로 불림. 신구교의 정치적 대립 극복 천명(1945)
 - 전후 오랫동안 독일의 제1당. (최근 총선에서 제2당이 됨)
- 네덜란드 CDA: 신구교 정당 합당: ARP(신교)+CHU(신교)+KVP(구교)
- 오스트리아 ÖVP: 구교
- 스위스 Die Mitte(중양)

<- 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of Switzerland: 가톨릭 보수 정치세력

□ 유럽 대륙에서 중요한 기독교 민주주의 세력은 구교와 신교의 연합이거나 구교 주도임

- 네덜란드의 경우 신교 세력이 19세기부터 별도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했으나 1980년에 구교 정당과 합당하여 CDA를 형성
- 신교계열의 정치지도자로서 가장 주목받는 성공사례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적 업적도 구교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했음

□ 기독교 정당들은 시장방임주의와 국가개입주의의 중간 지대에서 개인과 가족의 자율 및 책임, 지역산업, 직능 단위의 자치,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동시에 강조해 옴

-> 보수적 복지국가(Esping-Andersen)의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구교와 신교가 정치세력화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신학적, 사상적, 사회경제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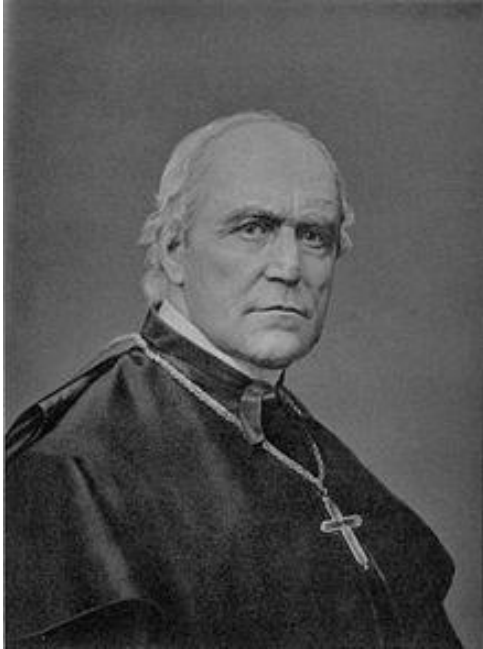
□ 이 문제의식의 틀 속에서 구교의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폰 케텔러(Wilhelm Emmaunel Freiherr von Ketteler)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동문제관을 비교하고자 함

- 이를 통해서 칼빈주의 사회사상이 가톨릭의 사회교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함
- 그러한 차이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1) 이 자료는 2021.10.7. 기독교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극히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2. 폰 케텔러(von Ketteler)와 카이퍼(Kuyper)

Wilhelm Emmanuel Freiherr von Ketteler
(1811-1877)



Abraham Kuyper
(1837-1920)



표 1 폰 케텔러와 카이퍼의 생애 간단한 비교

	폰 케텔러(1811-1877)	카이퍼(1837-1920)
국적	독일	네덜란드
직업	신부	목사, 정치가(총리 역임)
별명	노동자 주교(Arbeiterbischof)	거인(de Geweldige)
출신	귀족(Freiherr)	목사 집안
목회	농촌(Hopsten) 중요도시(Mainz)(1850-)	농촌(Beesd), 중요도시(Utrecht, Amsterdam)
주된 활동분야	-구교의 교회자치권+정교 분리('문화투쟁') -노동문제	-기독교 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학교투쟁') -노동문제
정치적 활동	-1848 프랑크푸르트 의회 의원 -'중앙당' 창당 참여(1870) -1871/72 독일제국의회 의원	-반혁명당 창당(1879), 다년간 총재 -총리(1901-1905)
중요저작	'현재의 중요 사회문제들'(1849) '자유, 권위 그리고 교회'(1862) '노동자 문제와 기독교'(1864) '자유주의, 사회주의, 기독교'(1871) '독일제국 내의 카톨릭교도: 정치강령 초안'(1873)	'칼비니즘, 우리의 헌법적 자유의 근원이자 요새'(1874) '우리의 강령'(1879), '영역주권'(1880), '수공노동자'(1889), '사회문제와 기독교'(1891) '칼빈주의 강연'(1898) '반혁명의 정치'(1916-1917)

3. 노동문제관의 비교

□ 폰 케텔러의 노동문제관 변화(Iserloh(1975), S.5)

1. '사회문제'를 시대의 과제로 봄
2. 처음에 그 해결책을 기독교적 이웃사랑을 통한 의식의 변화에서 찾음
3.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자유로운 Gesellschaft, 특히 교회의 힘으로 그것을 달성할 것을 기대
4. 60년대 말부터, 국가 기구(Mittel)의 직접적 개입(Einsatz)를 요구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인지

□ 폰 케텔러의 노동문제 관련 저작들

○ '노동문제와 기독교'(1864)

- 저술의 배경(GW. p.367):

1863년 Schulze-Delitsch가 노동자들의 자조적 생산협동조합을 제안

같은 해 사회주의 운동가 Lassalle이 국가의 신용을 통한 협동조합을 제안.

독일 카톨릭계도 이에 자극받아 노동문제에 대해서 연구에 주력.

이 배경에서 폰 케텔러의 연구가 이루어져서 1864년 출간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그 후 1891년까지 4판이 출간됨(Iserloh, Erwin hrsg.(1977)).

Abteilung I, Band 1)

- 목차

1. 노동자 문제의 중요성, 주제 및 범위
2. 노동능력 없는 노동자
3. 노동계급의 상태
4. 이 상태의 두 가지 이유
5. 자유당의 제안
6. 급진당의 제안
7. 노동계급을 돕기 위한 참되고 실용적 수단들
8. 맺는 말

부록

○ 종교 및 도덕과 관련 속에서 살펴본 노동운동과 그 노력(1869)

- 지역 순회 중 Liebfrauenhaide에서 카톨릭 노동자 대중 앞에서의 연설
- 노동계층의 입법 요구와 그에 대한 찬성, 그 요구와 종교 및 도덕과의 관련성

○ 독일제국 내의 카톨릭교도, 정치 강령 초안(1873)

- 독일제국 출발(1871)을 전후 정세에서 카톨릭 세력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견해, 요구 정리
- 1870/71년경 집필했으나 내부 논쟁으로 인해서 발표 유보했다가 1873년 출간

- 주요 주제

1. 독일제국의 주권(Gewalt), 오스트리아와의 관계, 제국과 구성국가들과의 관계,
2. 독일 내 기독교의 지위. 교회의 자치권
3. 개인과 조직의 자유, 교육과 학습의 자유, corporative Organisation, 자치<-> 관리의 지배, 주, 자치단체, 군의 자치
4. 헌정구조: Oberhaus 와 최고 제국법원
5. 국채관리
6. 노동자계층의 corporative 재조직, 노동보호
7. 비밀조직의 금지

(1) 노동문제의 원인

가. 폰 케텔러

□ '노동문제와 기독교'(1864)

- '무엇이 노동을 진정한 상품으로 만들고 그 가치를 생존에 필요한 최저수준으로 낮추는가'(von Ketteler(1890), p18 이하)
-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 양자는 경쟁에 따르며,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모든 자연적 인위적 장애요인의 제거에 의한 것임...일반적 영업활동(Handelsfreiheit)의 자유가 그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함
- 1.노동에 이 원칙을 적용해보면 노동공급의 경쟁 강화가 원인.
이것을 초래한 것은 직업경계(Gewerbegrenzen)의 철폐임. 일반적 직업자유(allegemeine Gewerbefreiheit)
- 2.자본의 지배력(Übermacht des Kapitals)(von Ketteler(1890), p23 이하)
 - 두 가지 지속적 작용
 - 1.자영 노동자(selbstständige Arbeiter) 수 감소, 임금 노동자 수 증가
 - 2.기계를 이용하여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킴.

상품가격이 더 이상 노동자 생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구매가격에 의해서 결정됨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경쟁할 뿐 아니라 기계와 경쟁하게 됨
- "국가는 Zunftzwang의 남용을 억제하면서도 그 중 정당한 것을 직업자유와 결합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 직업자유로 흐르는 속도를 조금 늦추었을 뿐" (p.25)
- 자유주의적 경제관 비판
 - 노동자의 '자유노동'은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p.117) "이 자유는 속임수이다"
 - 노동자의 이동자유(Freizügigkeit)는 명목상일 뿐. 고향을 떠나는 이동비용, 포기해야 하는 당일당일의 임금등이 너무 높음
 - 직업자유(Gewerbefreiheit)도 허울뿐. 이직하기에 많은 나이. 분업체제로 인해서 부분화된 숙련. 건강문제

나. 카이퍼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만이 아니라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에 관심

□ 갈등의 원인(우리의 강령(p.332-334), translated by van Dyke(2015))

- 노동자들의 지식, 의식의 성장: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
- 기계화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감소, 탈속련화
- 인구증가
- 프랑스 혁명 이념의 확산
 - 하층민은 만족/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상실, 상층민은 동정심 구제 상실하고 무절제한 이기심
 -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 도덕적 유대 소멸, 연대와 애착 상실됨

□ 노동자 조직의 붕괴와 부재

- 자유주의 이념(laissez-faire)/경제정책에 의한 노동자 조직의 제거(수공노동자(p.242-246), translated by Bratt(1998))
 - > 인간존재의 안정감 박탈
 - 증기와 엔진: 수공노동에 대한 의존성을 없앴, 대자본 축적, 노동자 자유이동(국내외), 안정적 장기 노동계약 사라짐

다. 비교

□ 원인에 대한 고찰은 두 사람이 비슷함

- 직업자유화, 인구증가, 기계화
- 카이퍼는 노동자 조직의 붕괴를 특히 강조함
 - 폰 케텔러 역시 직업자유(Gewerbefreiheit)로 인한 경쟁강화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이동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음
 - 카이퍼는 경쟁강화보다는 조직이 주는 보호, 대표 효과의 소멸을 강조함

(2) 해결방안

가. 폰 케텔러

□ '노동문제와 기독교' (p.79이하)

- 자유당과 급진당의 제안은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몰락으로부터 막지 못한다.
- 정치적 자유, genossenschaftliches Leben의 개화도 사회적 상태(sociale Verhältnisse) 악화를 막지 못함
- 기독교에게 이 상태를 개선할 수단이 있다.(노예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되돌려 준 것이 기독교였다)

- 1: 노동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위한 시설 창립 및 지도(p.86)
- 2: 기독교적 결혼에 기초한 기독교적 가족(p.90)
- 3: 진리와 가르침, 진정한 교육(p.96)
- 4: (노동자 계급의/기독교의) 사회적 힘들(p.105)
 - 노동자들의 단체(Genossenschaft, Vereinswesen) 지원함으로써
 -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적이 아니더라도
 - (소극적 인정) “불경한자가 공기를 마셔도 그 공기는 하나님의 공기이며, 신을 부인하는 자가 빵을 만들더라도 그 빵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준다”
 “같은 것이 단체에도 적용된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악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기초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다”
 - (기독교의 적극적 기여 가능성)
 기독교가 단체들(G, V)을 ‘단체’(Körperschaft) 즉 부분이 하나의 영으로 통합된 전체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만이 단체를 완성하고 노동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악의 근원인 왜곡된 자기 사랑을 정리하고, 규율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이렇게 된 자기사랑은 이웃사랑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p.107-108)
 - 노동자를 조합(G)을 통해서 도우려는 단체로는 자유당의 술츠-델리취 형 이외에 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두 종류가 있다.
 - 1.수공노동자협회(Handwerkerverein)
 - 2.기능공협회(Gesellenvereine)(Kolping의 지도)
 이동하는 노동자에게 숙소, 교육(종교, 정치, 기술), 의료 서비스 제공(de.wikipedia.org)
- 5: 생산조합(Produktiv-Association)(p.111)
 - 생산조합: 노동자가 경영에 지분을 갖는 것. 기업가이자 노동자.
 임금과 이윤의 지분을 동시에 가짐
 - 노동자 대부분이 이러한 조합(Genossenschaft)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라살(Lassale)적 해법(p.112 조합을 위한 초기자본을 조세로 조달하여 국가가 공급)에 대한 반대
 - “기독교 안에 심장을 움직이는 힘이 이 분야에서도 노동자계급을 서둘러 도우러 가서 대규모 생산조합이라는 생각을 실현할 것이라는 희망”(p.113)
 - 술츠-델리취의 협동조합 운동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p.114)
 - “언제 어떻게 기독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자계급을 돕게 될지는 모른다”
 - 로마시대 노예해방에 기독교인들이 기여했음을 강조(p.114-115)
 - 기독교인의 자유의지와 양심에 의한 금전적 기여와 국가의 조세제도를 대비시킴(p.115)
 - 이미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구축된 교회, 수도원, 구제 시설, 교육기관
 - 자본소요량이 너무 크지 않고 기업 확장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 부문부터 시작한다면 도입이 매우 어렵지는 않을 것(p.119)

□ 마인츠 기능공 협회(Mainzer Gesellenverein)을 위한 강연(GW 1-1, p.685-688)>

- 자조(Selbsthilfe)와 국가도움(Staatshilfe): 자유당(Schulze-Delitzsch)과 급진당(Lassalle)을 구분하는 구호. (685),
 - 인간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 자조로는 부족. genossenschaftliche Selbsthilfe 도 역시 일면적 (686)
 - 국가도움은 라살이 말하는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 언제 가능할지 모름(S.377, Anm1참조). 어떤 방식으로 국가도움이 이루어질지 불명확. 수많은 제도들이 바뀌어야 함.
- 자조와 국가도움 모두 정당하지만, 그 양자 결합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오류.
- 도덕과 종교가 노동자를 고양(Hebung)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687)
 - 가족의 삶이 중요. 임금이 높은 것에서 가장 빈곤문제 심각한 프랑스의 사례
 - 도덕과 종교는 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파고들어야. 인간적 감성과 기독교적 심성이 이윤계산에 반영되어야
- 국가의 역할도 중요. 노동자계급의 몰락(Verderben)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688)
- 현재의 심각한 문제가 제거된다 해도 빈자와 부자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이웃사랑과 자비(Barmherzigkeit)의 사역을 행할 기회를 준다.

□ 1869년 Liebfraueheide에서의 강연(GW p.406)

- 해설: 생산협동조합 제안에 대해 가톨릭계 반향 부족. 실망. 교회의 힘과 기독교적 사랑 외에 국가의 입법 필요.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 이익 대표 위해서 결합 필요성을 강조(Iserloh(409))
- 노동자 이익을 위한 단결 운동(409), 프랑스 혁명 이후 자리잡은 국민경제적 원리의 결과로 필연적. 교회는 이를 축복함(410)
 - 경제분야에서의 무조건적 자유가 노동자를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했음. 노동자들은 고립된 상태로 금전의 힘을 상대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런 운동도 종교의 도움없이 지속적 성공 할 수 없다. 종교 없이는 이기주의로 빠질 수 밖에 없다(412)
- 노동자계급의 요구들
- 1. 임금인상. 노동의 진정한 가치에 맞게
 - 종교도 이를지지. 인간의 노동은 상품처럼 오직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아님(412)
 - 이를 위한 주된 수단 Trade-Union 그리고 파업. 이것이 임금을 의미있게 상승시켰음.
 - 이를 본받아 독일에서도 Genossenschaft 결성(413)(이것은 노조 말함. 413 각주)
 - 이 운동은 종교와 도덕과 결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 왜 1. 임금인상에는 한계가 있고 인상되어도 제한적인 소득만 가능
 - <- 임금은 기업의 수익성에 의해서 결정됨. 임금 너무 높아지면 자본은 다른 산업부문으로 이동할 것
 - 실업 초래
 - 절제(Maessigkeit)와 절약이 있어야 높은 임금을 통한 복지 도달 가능. (415)
 - 절제와 절약은 삶이 종교적이어야 가능. (술, 오락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 2. 임금인상 요구가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와 도덕 중요
 -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투쟁이 아니라 양자간 합법적인 평화가 목표이어야 한다. ”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는 자본이 투기, 주식시장, 국채에 투자되게 하고. 반면 노동자는 다른 대안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

- 2: 노동시간 단축. 가능한 극한으로 연장하려는 경제체제의 논리. 단축 노력지지. 단 종교와 도덕이 있어야 그렇게 얻어진 시간을 가족을 돌보고, 가게를 경영하는데 쓸 수 있을 것임(416)
- 3. 휴일 보장. 정당함. 정당의 요구에만 맡겨서는 안됨. 금전적 이득을 위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죄악. 종교가 있어야 휴일에 참된 안식이 있음.
- 4. 아동노동 금지. 지지
- 5. 어머니 노동 금지. 가족 붕괴. 노동자문제는 무성보다도 도덕의 문제이며 이것은 가족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423). 종교 안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만 해결될 수 있다.
- 6. 소녀 노동 금지(?) 좋은 가정을 위해서 품행 방정한 처녀 필요. 공장에서 남녀 분리. 여성 노동자에 여성 감독자 배치.

□ 중앙당 강령 초안(1873) 내 'Arbeiterfrage'(S.236-245)

-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작용할 임무가 있다(berufen). 두 가지 측면에서
- 1. “노동자계층이 협동적 결속(genossenschaftliche Verbindungen)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할 임무”
 - 노동자문제는 **현대사회 문제**의 일부
 - 현대사회의 문제와 과제(**8장 헌정형태**): ‘사회(Gesellschaft)의 파괴, 사회의 재조직,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된 사회를 국가의 **헌정질서(Staatsverfassung)**에 포함시키는 것’
 - 노동자는 고립되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생존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금노동자가 됨
 -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산협동조합’
 - 그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
 - ‘헌입법’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개별적 조직의 설립을 가능하게 할 뿐이고, 노동자와 수공계층의 ‘하나의 일반적인 조직(eine allgemeine Organisation)’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 **또하나의 다른 법을 통한 본질적 보충이 필요**
- 2. “노동자들을 정의롭지 못한 착취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임무”
 - 노동자계층은 적어도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 자조(自助)할 수 없는 동안에는 자본소유가 가진 우위(優位: Übermacht)로부터 자기 자신, 건강, 노동력, 가족에 대한 보호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국가는 모든 자유주의적 경제가 요구를 충족하여줌으로써 노동자를 약하고 보호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음. ‘고립’은 동시에 ‘약함’이다.
 - 요구: 유아노동 금지, 금지를 정규적 고용에만 국한시키지 말 것, 최소 14세까지
기혼 여성의 공장 및 다른 산업내 영업체 내 고용 금지,
일요일, 휴일 노동금지, 10(최대11)시간 노동일
 - 노동자들이 ‘Coalition’을 통해서 자본소유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다’는 반론은 근거가 없다.
 - Coalition은 법적 규제를 대체할 수 없다(S.240).

많은 실패한 파업들이 그 증거임. 부정적 후과를 남김. 파업은 비상상황, 병적인 상태의 표현임.

입법부가 자신이 할 일을 노동자와 사용자간 비극적 사회적 투쟁에 내 맡겨둘 이유가 없다.

- 이러한 입법의 준수를 위해서 감시기구 필요(공장감독관 또는 노동청)

나. 카이퍼

□ 우리의 강령(이명헌(2011))

- 정치적 균형. 각종 입법영역에서(민형법, 부동산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 정치적 발언권의 균형
 - 특히 투표권의 확대<-- 노동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 노동법전의 제정(<--> 아래 *와 모순?)

□ 수공노동자(이명헌(2011))

○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p.241-242), tr. Bratt)
 “입법을 행하는 의회(Staten-General)는 하나의 단일한 영역으로 생각된 국민(het volk als één kring gedacht)을 대표할 뿐이지, 노동과 자본과 같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구분된 (onderscheidene) 영역들을 적절히 대표하지는 못한다”

- 헌법적 기초를 가진 노동의 조직: 노동회의소 (자본은 이미 상업회의소로 조직되어 있음)
 - 사적 노동자들의 조직이 아니라 정부에게 대한 공식적 자문 조직. 노동자체의 조직에 뿌리를 두어야
 - 점진성: 상향적 조직과정, 기능의 심화(자문에서 입법 수준에서의 대표성까지)
- 독립성: 자본의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
- 정치적 최상위 대표성: 상원을 지방정부가 선출하는 체계 비판.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원’으로 (대학, 대도시 상업, 산업, 농업, 노동, 교회, 학교, 자선단체)
 - 지역은 물론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는 노동회의소의 조직은 이러한 이해관계원 구성으로 가는

〈표1〉 카이퍼의 노동회의소 조직의 구상(‘수공노동’)

발전단계	노동회의소 조직	기능	상공회의소 조직
낮은단계	지역회의소	임의적 자문	이미 현존
중간단계	지역회의소가 산업별 하부조직 결성	공식적 자문	산업별 하부조직
	지역내 대표성 강화	중재위원회 위원 지명	지역내 대표성 강화
높은단계	전국적 일반노동회의소	- 일반적 문제 자문 - 노동법전 상의 문제 협상. 필요한 경우 - 상원(이해관계원)에서 노동의 이해를 대표	전국적 일반상공회의소

이명헌(2011),p.229

다. 비교

□ 개별적 생산협동조합에 관하여

- 폰 케텔러는 초기에 개별적 생산협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소득 향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초기자본 조달에 가톨릭교(도)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향이 없자, 노동조건과 관련한 국가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음
 - 폰 케텔러가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컸던 까닭은 일차적으로는 독일에서 술체-델리취나 라살레의 운동이 활발했다는 점, 카이퍼와 달리 그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때에도 사목(司牧)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카이퍼의 관심은 지역, 산업, 국가 단위의 노동자 조직에 있으며, 개별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그의 저작에서 찾기 어려움
 - 카이퍼는 케테럴에 비해서 훨씬 전문적 정치가였음
 -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영역주권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휴일)에 대한 국가개입 필요성, 가능성

- 폰 케텔러는 자조, 교회의 도움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 특히 구체적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 입법을 통한 개입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정치 강령에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카이퍼는 구체적 노동조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음
 - 이것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그의 사고와 관련이 있음
 - 노동조건 문제는 노동자가 조직화되어, 역시 조직화된 자본과 타협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보았음
 - 국가의 개입은 '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약한 면을 보호하기 위하여(Kuyper(2015),p.339)' 그리고 '이익의 갈등이 있을 때'(Kuyper(2015),p.339)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음
 - 단, 카이퍼 역시 구체적 노동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입법영역과 행정조치 면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국가의 기능은 인정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입법분야 외에도 조세 정책 등에서도 노동친화적 정책을 제시함 (수입부과금 인상, 생필품 대신 사치재에 대한 소비세 등)(Van Dyke(2013),p.115)

□ 노동자의 조직과 관련하여

- 두 사람 모두 헌법적 기초를 가진 하나의 '일반적 조직'으로의 노동자 단체를 중시하지만, 카이퍼의 노동회의소 아이디어가 훨씬 조직적임
- 폰 케텔러 역시 개별적 조합(Genossenschaft)를 명확히 인식하고 일반적 조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후자의 중요성은 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음
- 카이퍼는 노동자계층이 직면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점진적 발전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함
 - 지리적으로: 상향적으로 조직
 - 조직면에서: 산업별 조직을 하부조직으로
 - 기능적으로: 정부(지방, 중앙)에 대한 자문에서 출발하여 입법(?)에 이르기까지

□ 국가개입과 노동자 조직에 대한 폰 케텔러와 카이퍼의 사고 체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 보충성 원리/영역주권론
- 전자는 위계적 개념이 강한 반면, 후자는 수평적 차원을 더 풍부하게 가짐
- 보충성 원리: 가능한 한 최소단위가 자신의 문제를 규율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상위의 단위, 특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짐
- 영역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가족, 학문, 사회적 삶, 교회(Bratt tr.(p.467)), 상업, 노동, 자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남
- “이 모든 영역들의 톱니바퀴들은 서로 맞물리며, 바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 삶의 풍부하고 다면적인 다양성이 생겨난다”(영역주권론, Bratt tr.(p.467))

4. 향후 연구과제

- 보충성 원리(Subidiary Principle)와 영역주권(Sphere Soveignty)의 차이 본격 검토
- 특히 Ossewarde(2011)가 제기한 현대 기독교 사회사상의 3종간의 경쟁에 관한 개념에 기초하여 두 원리의 의 기본적 성격,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조직 고찰의 기본 단위, 정치의 목적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노동문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음

Core Features	Sovereignty Thinkers	Thomists	Neo-Calvinists
Core principle	Sovereignty	Subsidiarity	Sphere sovereignty
Nature	State of nature	Teleological	Christological
Human nature	Presocial	Rational animality	Symbiotic
Social organization	Contract	Community	Sphere
Meaning of law	Will of the sovereign	Natural Law	Cosmonomos
Aim of politics	Pacification of civil conflicts	Common good	Consecration of the cosmos

FIGURE 1: Three Rival Versions of Christian Social Thought

Ossewaarde(2011), p.302

참고문헌

- Bratt, James eds(1998)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erdmans
- Iserloh, Erwin(1975), “Die soziale Aktivitaet Katholieken im Uebergang von caritativer Fuersorge zu Sozialreform und Sozialpolitik, dargestellt an den Schriften Wilhem Emmanuel v. Ketteler’s”
- Iserloh, Erwin Hrsg(1977), “Wilhelm Emmanuel Freiherr von Ketteler Sämtliche Werke und Briefe: Abteilung I, Band 1, Schriften, Aufsätze und Reden 1848 - 1866” Im Auftrag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Mainz, v. Hase & Koehler Verlag Mainz
- Kuyper, Abraham (2015) “Our Program: A Christian Political Manifesto”,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Lexham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Ons Program. tweede druk(1880), Amsterdam, J.H. Kruyt Ossewaarde, Marinus(2011), ‘Settling the “Social Question”: Three Variants of Modern Christian Social Thought’,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Volume 14, Number 2(Fall 2011): 301-317
- Van Dyke, Harry (2013) “Kuyper’S Early Critique Of Unchecked Capitalism” ‘Economics, Christianity & the Crisis: Towards a New Architectonic Critique’ Proceedings of the First Kuyper Seminar, 8-9 January 2013, Amsterdam, The Netherlands (2013), “Philosophia Reformata” Vol. 78, No. 2, pp. pp. 115-123, Published By: Brill
- von Ketteler, W.E.(1873), ‘Die Katholiken im deutschen Reiche, Entwurf zu einem politischn Programm’ Abt I. Band 4: 1871-1877
- von Ketteler, W.E.(1890), ‘Die Arbeiterfrage und das Christentum: vierte Auflage’, in Iserloh, E. Hrsg(1977), Abt I. Band 1, Mainz, Verlag von Franz Kirchheim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19세기 노동문제에 대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상 비교: 폰 케텔러와 카이퍼의 사례	발표자	이명헌
		논찬자 (소속)	이선복 (동서대 교수)

자본주의 시장경제 환경을 살아가면서 노동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은 생산의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의 상품이기도하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과 기타 처우들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수익구조를 고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임금을 받으므로, 임금격차의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 이것이 경제학 또는 회계학적 사고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 노동과 임금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이 보는 갈등 인식은 더욱 뿌리가 깊어 보인다. 심지어 기업 경영자와 노동자를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 착취와 투쟁의 관계를 보는 세계관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19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로 돌아보며, 그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위 연구는 흥미있어 보인다. 연구가 아직 진행단계에 있기는 하나, 경제문제를 기독교 신앙과 융합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폰 케텔러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개요는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케텔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의원이며 중앙당 창당에도 참여한 가톨릭 신부로, 노동문제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적 경제관에 비판적으로, 교회의 힘과 국가법률을 통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활동을 하였다. 특히 노동자 단체를 지원하고, 생산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경영지분을 갖고,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 보장, 아동노동 금지, 어머니 노동금지, 소녀 노동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하였다.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을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와 비교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델란드 수상을 역임하고, 프랑스 혁명 이후 밀려든 무신론에 맞서기 위해 반혁명당을 창당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목사이다. 카이퍼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의 계승한 신학자로,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자유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는 노동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관심을 갖고면서도, 국가가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등)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말하며, 사적 노동자 조직이 아닌 헌법적 기초를 지닌 조직으로 노동회의소 설치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영역주권론을 통해,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할 수 있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았다.

즉 케텔러가 가톨릭의 신부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처우개선을 위해 깊숙이 들어와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카이퍼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직업적 소명 및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칼빈주의 이념을 신학적 배경으로 노동 경제문제에도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카이퍼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보다도, 노동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작용,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인식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음을 논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귀한 연구를 통해 노동에 대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대표적 입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논문이 유익하게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카이퍼가 노동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카이퍼의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만큼 영적인 문제를 포함 성경본문을 통해 노동문제 연구를 발전시켜 가도 좋겠다는 조언을 드린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 비유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